

ABS, SM 폭등으로 1100달러 돌파

CFR FE Asia 1100-1120달러로 25달러 상승 ... 가공기업 적자가 문제

ABS 가격은 4월7일 CFR FE Asia 톤당 1100-1120달러로 25달러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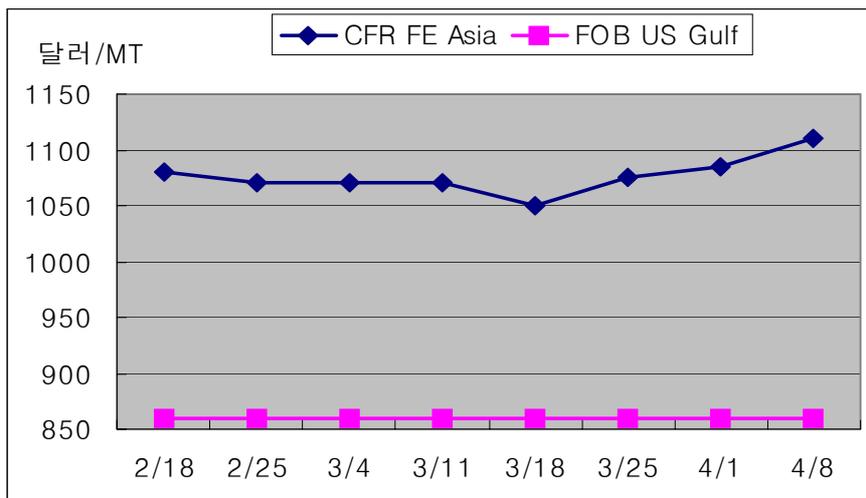
아시아 ABS 시장은 SM 가격폭등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달러 상승에 머물렀으며, 드디어 1100달러를 돌파했으나 수요가 줄어들 것이 불가피해 걱정이 태산이다.

타이완산으로 4월 하순 거래물량 100-500톤이 CFR China 1110달러에 거래됐으며, 한국산은 CFR China 1150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의 ABS 가격도 ex-Works 톤당 1만1800원으로 수입가격 기준 1077달러를 형성해 동아시아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.

그러나 ABS 가격이 11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가공기업들의 수익이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수요감소 및 가격상승 억제가 불가피한 상태이다.

ABS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ABS 가격은 4월7일 Injection 그레이드 기준 FD NWE 톤당 1981-2066달러로 9달러 상승했다.

<화학저널 2004/04/14>